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성 지식 권력망 읽기에서 새 여성의 모색으로) 조주현 지음 | 또하나의문화 | 328쪽 | 값 10,000원

변함없는 마이너리티, 여성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에서 저자 조주현 교수는 가정 폭력 문제를 서두에 꺼낸다. 가정폭력이란 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벌어진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저자가 보기에 이는 남성 중심으로 짜여진 권력구조에서 빚어지는 단적인 불평등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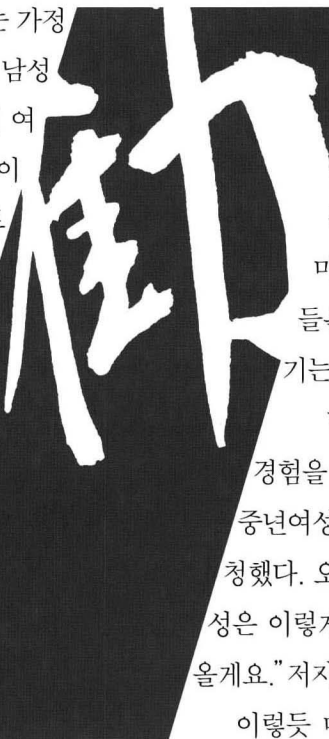
여성학자인 저자는 매맞는 여성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시작으로 남성권력에 의한 근친상간, 전 문직 여성들이 처한 현실 등을 제시함으로써 권력망 속에서 바람직한 여성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되짚어본다.

얼마 전 한 여성 개그맨의 가정 내 폭력이 일간지의 사회면을 장식

했다. 각종 매스컴에서는 이에 맞추어 가정폭력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하지만 곧 잊혀질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인 가정 문제로 국한시키곤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기미를 좀체 보이지 않는다. 매맞고도 사는 여성들은 없어지지 않고 때리는 남성에게 사회분위기는 관대하다.

먼저 저자는 글머리에서 인상적이었던 상담 경험을 소개한다. 신체장애가 올 정도로 맞고 사는 중년여성이 남편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서 상담을 신청했다. 오랜 시간의 상담이 끝나고 돌아서면서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남편하고 다시 잘되면 인사하러 올게요.” 저자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렇듯 매맞는 여성은 이중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맞으면서도 떠나지 못한다. 저자는 폭력이 고작 4.9퍼센트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처럼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력적인 남편이 구타를 멈추지 않고 매
 맞는 아내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이 서로에 의해, 그리고 폭력에 의해, 규
 정되는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매맞는 아내를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남
 편과 아내를 묶어 두고 있는 것은 체계이
 며, 상호작용이고, 관계라는 것이다. 또 그
 것을 용인하도록 만드는 것은 가부장적인
 남성권력 중심의 사회이다.

저자는 1992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보은 사건'을 또 하나의 사례로 제
 시한다. 이 사건은 근친상간에 나타나는 성과
 권력의 폭력성과 부당성을 잘 보여준다. 먼저
 저자는 김보은 사건을 보는 일반인들의 두 가
 지 의문을 지적한다.

검찰측 주장처럼 당시 의구심은, 김보은
 이 자기방어 의지를 보이지 않고 13년 동안이나
 계속된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감수하고 살았다
 는 점과 사실을 알고 있던 어머니가 방관한 채 묵
 인할 수 있었던 점에 집중되었다.

김보은의 의붓아버지 김영오가 검찰의 간부
 로 밖의 권력을 가족 내에서도 여지없이 행사하였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권위적이고 폭력
 적인 성격으로 가족에게 전형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요구하였다. 또 모든 경제적 생활기반이 김
 영오에게 있는 한 가족들은 아무도 그에게 반기를
 들 수 없었다. 김보은은 가족의 안위를 위해 희생하
 는 쪽을 택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어머니 또한 마
 찬가지였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자칫 약자인 여성을 보호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한다. 그것은
 여성을 수동적으로 보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재확인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보은이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
 판정을 받은 것이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작은 사회로 불리는 직장 내에서 여성의 위치
 는 어떠한가. 성공한 여자로 여겨지는 전문직 여성들의 직
 장 내에서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권력 구조에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지적한다. 최근 기업의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이 고작 4.9퍼센트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처럼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직업적 성취를 얻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저자는 토크 전문직(수적으로 집단
 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실제적인 힘을 갖지 못하며 명목상의 지
 위만을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성, 지식, 권력의 함수관계를 말한다. 이는 이른바 성공
 한 여성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통해 남성위주로 돌아가는 직업사회에서의 평
 등한 권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기도 쉽다고 저자는 말
 한다. 때문에 적당히 자기를 노출시키고 적당히 자기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수인 상담자와의 사례에 따르면 '아직도 수가 적으니까 주의
 를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기대를 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다. 여자라서 같은 일을 했을 때 남성에 비해 평가절상과 절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남성성이 규범인 사회에서 더 높은 곳
 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성성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하기 어렵다. 남성들
 의 필요에 따라 변화할 뿐이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밝혀보려고 하는 것은 남성에 대비한 상대적
 차원의 여성성이 아닌 진정한 여성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권력의 구조
 에 의해 담론화되어 버린 여성성을 부정하고 근원적인 물질-기호적 존
 재로서의 여성을 이해하는 것,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는 간주관성
 intersubjectivity의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라 말한다.

여성이 사회의 마이너리티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유
 효하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불평등한 권력구조에서 남성을
 지금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역차별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 아니다.
 남성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
 이든 권력구조에서 희생되지 않는 계층이 없도록 이제까지와는 다
 른 새로운 길,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주필**

강경희기자